

매하신구공안국 3 명의 지명수배범 나포

‘100 일 가정방문 안전보장’ 전문행동으로 랑호한 사회치안환경 적극 마련

매하신구(매하구시) 공안국은 ‘100 일 가정방문 안전보장’ 전문행동을 전개할 데 관한 길림성공안청의 포치, 배치에 따라 전체 파출소 경찰과 보조경찰을 조직하여 천만가구를 방문하여 우환을 조사배제하고 모순과 분쟁을 조정하며 도주범을 잡음으로써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의 치안환경을 전력으로 창조했다.

최근, 매하구시공안국 소양(小杨)

파출소와 리로(李炉) 파출소, 만룡(湾龙) 파출소는 각각 착실한 기초작업을 통해 3 명의 인터넷 지명수배범을 성공적으로 나포했다.

경찰, 인내심 있게 소통해 지명수배범 자수토록 권고

2월 21일, 소양파출소 경찰은 가정방문사업 과정에 유독유해식품을

생산, 판매한 혐의로 장춘시공안국에 의해 인터넷 지명수배범으로 지정된 학씨가 가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장악했다. 경찰은 학씨 가족과의 소통을 거쳐 법률, 도리, 감정 등 여러 각도에서 학씨의 가족과 이해관계를 설명했다. 대량의 소통을 거쳐 학씨의 가족은 마침내 심리적 우려를 내려놓고 학씨를 데리고 소양파출소를 찾아 자수하도록 했다.

2월 15일, 만룡파출소는 사기죄 혐의로 하북성 보정공안국에 의해 인터넷 지명수배범으로 지정된 류씨의 관련 단서를 장악한 후 경찰을 파견해 가족과 여러차례 소통하고 관계했으며 가정을 방문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관련 법률, 법규를 세밀하게 해석해주며 소통을 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법률의 위압과 혈육의 감화하에 범죄용의자 류씨는 가족과 함께 만룡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군중이 제공한 단서로 지명수배범 잡다

2월 5일, 리로파출소 경찰은 촌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중요한 단서를 획득했다. 그것인즉 이웃진의 귀향인원 리씨가 이 촌민에게 은행카드를 임대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즉시 리씨에 대해 조사해보니 리씨가 강서성 공안기관에 의해 인터넷 지명수배범으로 지정되었음이 포착되었다. 파출소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범죄용의자 리모를 나포했다. 돌격심사를 거쳐 범죄용의자 리씨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기범죄 사실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현재 3 명의 범죄용의자는 모두 현지 공안기관에 의해 압송되었다.

/유경봉기자



연길시검찰원 형사집행검찰조 성급 우수 명단에 입선

일전 연길시인민검찰원 형사집행검찰조가 2023년도 전 성 검찰기관 우수사건처리팀에 선정되었다.

규범화 감독 사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서 이 팀은 형사집행 검사 업무에 깊이 파고들고 구두의견, 검찰건의, 위법시정 등 감독수단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힘을 기울여 집행법자, 일반 위법, 중대한 위법 등 행위를 정확하게 구분하며 증거가 없는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증거가 없는 서류를 작성, 발급하지 않았다. 2019년 이 팀은 주목도가 가장 높고 감독이 취약한 일관인 잠시감외집행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전단계 연길시의 여러 큰 병원에 대한 방문을 통해 수감집행감독 과정에서의 모

든 사건처리 단계의 방식을 다그치고 검사 건의 사건, 수감집행 제정심사 사건, 수감집행 결정 심사 사건을 차례로 처리하여 완전한 잠시감외집행감독체계(暫予監外執行監督體系)를 구축하고 최종 잠시감외집행의 정형이 소실되었으나 형기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자 왕모모에 대해 법에 따라 수감하여 집행했다. 2019년 이 사건은 전국 사회구역 교정 감독 우수사건으로 선정,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이 영예를 지닌 팀으로 되었다.

형사집행 검찰강군을 구축하고자 이 팀은 형사집행검찰의 제반 일상관리제도를 건전히 하는 것을 통해 사건처리 권력 명세서와 사건처리 책임

을 명확히 했다. 주관지도자는 팀의 전반 사건처리 방향과 각 전문활동 임무의 완수를 책임지고 여러차례 공안기관, 인민법원과 협조하여 련석의의를 소집하여 업무에서 나타난 많은 난제들을 해결했다. 선진 경험을 전성, 나아가 성외에 보급하고 형사집행 검찰사업에 관한 여러가지 규정제도를 형성하여 사법행위를 규범화하는 사업을 순조롭게 전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2019년에는 길림성인민검찰원으로부터 전 성 우수파견검사실 등 영예칭호를 수여받았다.

업무소질이 뛰어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팀원들은 연습과 시험을 병행하여 실전을 위주로 한 팀원이 제

2회 전 성 검찰소 검찰업무경기에서 총점 1위의 성적으로 전 성 검찰소 검찰업무 모범을 획득하고 그후 연속 2기 전 성 형사집행 검찰업무 모범 칭호를 수여받았다. 또한 2명의 검찰관이 전 성 검찰기관 사건처리 능수로 평의되어 팀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도록 이끌었다. 2023년 원내 형사집행 검찰부문의 사건이 많고 인원이 적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형 집행 법률감독모델(財産刑執行法律監督模型)’ 개발에 착수했다. 완성된 후 도합 300여개의 재산형 집행사건 단서를 발견했다.

/리전기자

연길 공안 학생들의 교통안전 수호에 전력 다해



개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길시 중소학교 부근의 급증하는 교통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등, 하교 안전을 수호하고자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에서는 근무모식을 총괄하고 과학적으로 포치하여 학생들의 등, 하교길 평안 수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에서는 도로교통 출행법규와 관할구 중소학교의 귀교 실제와 결부시켜 학교 주변의 등, 하교 시간대 교통기 근무와 ‘학생보호 일터’ 사업기제

를 보완했다. 상시적인 교통관리 근무의 기초업무를 시달하는 면에서 미리 경력을 조직하여 학교 문앞과 주변 도로에 대한 순찰관리와 통제를 전개하고 당직경찰이 앞당겨 일터에 나서 차량이 정제되고 인원들이 도로에 집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밀히 방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치안질서를 수호하고 학교 주변 안전구역을 구축하고 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 관련 사업일군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등, 하교 길에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은 출행로선을 미리 계획하여 교통체증 도로구간을 피하고 학교주변 교통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통행해야 한다. 광범위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차를 탑승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탈 때에는 안전모를 쓰도록 해야 하며 자가용으로 아이를 마중하고 배웅할 때에는 도로규칙에 따라 운전하고 규범적인 주차를 진행해야 한다. 빠르게 등교하고 하학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은 빠르게 정지된 후 안전하고 질서 있게 빠르게 탑승해야 한다.

/리전기자



“관광시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을 찾으세요”

— 외지관광객 안도 경찰 덕분에 분실한 핸드폰 되찾아



최근 안도현공안국 이도백파출소에서 한 관광객이 안복촌 환락곡풍경구에서 핸드폰을 분실했다는 도움요청을 받았다. 제보 접수후 당직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전에서 온 한 관광객이 환락곡놀이장에서 놀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핸드폰에 중요한 전자 데이터와 사진들이 들어있어 그는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관광객 핸드폰의 구체적인 특징, 분실 시간과 장소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신속히 수색작업을 펼쳤다. 풍경구가 면적이 크고 관광객이 많으며 잃어버린 시간이 오래 지나 보니 핸드폰 되찾기 작업은 어려움이 컸다. 경찰은 현장 관광객들에게 문의

하고 음성방송을 내보내며 감시카메라를 조사하는 등 여러 수색작업 끝에 눈더미 속에서 관광객이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아냈다.

관광객은 경찰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번 일을 통해 ‘인민공안은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도백파출소 경찰은 “음력설 기간 장백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아주 많았는데 겨울에는 모두들 옷을 두텁게 입고 있기에 귀중품을 분실할까봐 걱정해 주고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물건을 분실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들을 찾으면 최선을 다하여 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리전기자



인민법원 대문, 소방대원들 위해 활짝 열다

— 연길시법원 ‘대중개방의 날’ 활동 전개



▲ 소방대원들이 재판을 경험하면서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몸소 체험했다.

2월 21일, 연길시법원에서는 ‘대중개방의 날’ 활동을 전개하여 연길시소방대대 특수근무소 일행을 초청하여 법원을 참관하고 ‘몰입식’ 재판을 체험하도록 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법원사업에 대한 군중들의 감도를 더욱 잘 접수하고 법원사업에 대한 료해를 증진하고자 마련되었다.

연길시법원 사업일군들의 안내하

에 소방대원들은 소송서비스중심, 구류실, 재판과학기술법정 등 장소를 참관하고 안내원으로부터 법원사업직능, 재판 절차, 사업편민리민봉사 등 관련 소개내용을 청취했다.

법관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고의상해죄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법정조사, 증거제시, 법정변론 등 절차가 질서 있게 진행되면서 현장 분위기는 엄숙하고 속

연했다. 소방대원들은 정신을 집중하여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몸소 체험했다.

재판이 끝난 후 소방대원들은 사법경찰들과 함께 법률보급좌담을 가졌다. 좌담회에서 사법경찰들은 주택매매, 전신사기, 집안분쟁 등 민생열점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한편 사건 해석 방식으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쌍방은 어떻게

하면 군중들을 위해 더 잘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 관련 노하우도 공유했다.

활동이 끝난 후 소방대원들은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법원에 대해 료해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세밀하게 알게 되었다. 법률의 위엄을 충분히 느꼈으며 많은 유용한 법률지식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했다.

/리전기자



2월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장백조선족자치현 마록구진 태양촌에서는 태양촌 촌민들과 파출소 경찰들이 함께 모여 정월대보름을 경축했다. 사진은 촌민들과 이도강변경파출소의 경찰들로 꾸민 양길 대오의 동북양림출판 장면이다.

/왕자욱(王子旭) 최창남기자